

학소위 ‘울림’ 여러 인권행사 개최

김민재 기자 minjae2059@khu.ac.kr
정성희 기자 keykeys923@khu.ac.kr

【서울】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울림이 여러 인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소위는 지난해 폐지된 총여학생회를 대신해 신설된 학생자치기구다.

지난 7월 학소위는 업무 성격에 따라 젠더퀴어팀, 장애환경팀, 노동팀으로 체제를 개편했다. 이후 학소위는 3개 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 행사를 마련해왔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젠더퀴어팀의 ▲대학 내 성폭력 담론을 다시 묻다라는 의제로 토론회가 진행됐

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사망 사건의 본질이 젠더갈등으로 변질된 현실을 재 논의했다. 학소위 한보나(경제학 2020) 젠더퀴어팀장은 “토론회가 대학 내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나누며 방향성을 설정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젠더퀴어팀은 ▲PROUD PERIOD : 월경권 지키기 사업을, 장애환경팀은 ▲너랑, 노랑 색바람 ▲소비 활동 멈춤 캠페인을, 노동팀은 ▲사라진 노동을 찾습니다 : 나는 창조하는 노동자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젠더퀴어팀이 주도한 PROUD PERIOD : 월경권 지키기 사업은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운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월경권’을 소개하고,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월경 관련 퀴즈 ▲성교육 ▲소책자 배포로 이뤄졌다. 한 팀장은 “월경권은 월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권리다”며 “부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월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이 더욱 분명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장애환경팀은 인터뷰 카드뉴스인 <너랑, 노랑 색바람>을 지난 9월 2주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공유했다. 행사명의 ‘노랑’은 점자블록을 상징하는 색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점자블록을



학소위 토론회

(사진=학소위 제공)

걸어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카드뉴스는 ▲청운관 엘리베이터 이용 시 혼잡한 대기 줄 ▲강의실 내 장애학생 좌석 부재 등의 학내 관련 문제점들을 짚으며 교내 배리어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환경팀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기획해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 멈춤 캠페인 운영 중이다. 학소위 김다현(정치외교학 2018) 장애환경팀장은 “장애학생 문제에 대해 비장애학생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훨씬 커졌

다”며 “학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며 이는 학소위에게 놓인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팀 역시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소위 이상혁(철학 2022) 노동팀장은 “대학사회에서의 노동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도 노동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고 전했다.

학소위 전성은(미디어학 2020) 위원장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소위의 존재 가치는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진다”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학소위 활동이 앞으로 연례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과 혐오 없는 우리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예학과 졸업작품 표절논란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국제】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 도예학과 졸업전시회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도예학과 졸업전시회에 참여한 A 씨는 같은 전시회에 출품된 B 씨 작품의 전체적인 모양과 작품에 사용된 기법, 주조법, 색상 등이 프랑스 공예작가 Nadège Mouyssinat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11일 해당 작가에 B 씨의 출품작 사진을 첨부해 표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메일을 보냈다.

작가는 해당 작품이 표절이 의심된다고 지난 16일 예디대 사무실에 메일을 보내 학교 측과 B 씨에 해명을 요구했다. 메일에는 “B 씨의 작품은 2019년부터 상업화를 시작한 나의 트레이드마크 디자인을 베낀 것 같다”며 “B 씨가 출품작의 디자인을 어디서 얻게 됐는지, 우리학교가 졸업전시회에 출품 예정인 작품의 원작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해당 메일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작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B 씨에 직접 “내 작품과 B 씨 작품의 유사성에 충격을 받았



표절 논란이 일은 B 씨의 졸업작품

(사진=박서현 기자)

으며 당신의 작품이 내 작품을 베낀 것 같다”는 연락을 취했다. B 씨는 작가에게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며 “오래전부터 작가님의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표절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B 씨의 해명에 작가는 “공개된 곳에 연락처가 있음에도 작품 구상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며, 팬이라는 사실이 작품의 유사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화가 나지만 이 일이 아직 학생 신분인 B 씨에 배울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B 씨가 다시 연락해 작품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졸업 전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계획하는 수업에서 해당 작가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차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기에 출처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물에 있어서도 작가의 작품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B 씨는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교수의 공신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교수님 역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도 밝혔다.

졸업전시회를 담당한 도예학과 방창현 교수는 “B 씨 작품에 대한 전시는 예정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3D 작품의 유사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작품을 실제로 봐야 한다”며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만 보고 표절을 제기한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4월부터 작품이 유사하다고 느꼈으나 중간에 변형시킬 줄 알았다”며 “원작자의 작품을 레퍼런스로서 활용할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작가정신을, 수공예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도예과에서 해당 작품으로 졸업 전시를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일을 물어버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0일에 시작한 도예학과 졸업전시회는 오는 5일까지 예디대 2층 A&D 홀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52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Find your Silhouette’을 주제로 한다.

▶2면에서 이어짐

더불어 올해 교비 연구비 지원 사업은 신진 교수들의 연구기반 및 역량에 집중됐다. 총 10개였던 지원 사업이 신규 임용일이 2년 이내인 전임 교원 대상인 ‘신진연구’와 신규 임용일이 5년 이내인 ‘미래선도 신진연구’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문계장은 “(높은 연구실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게 첫 번째다”며 “(우수 교원 임용으로) 신입 교원 중 실제 업무 실적이 높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연구환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새롭게 생성 또는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더 높은 연구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원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서울권 주요 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비해 대학원 전체 재학생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대학원 재학생 수는 5개 대학 평균 기준 57%에 불과했다. 전임교원 수와 연구실적 총계 규모가 가장 비슷한 고려대와 대학원 전체 재학생 수를 비교해도 70%에 그쳤다. 문계장은 “우리학교의 대학원 기반이 약한 건 사실이다”며 “대학원생들을 많이 육성해서 연구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학원생들이 같이 접목되지 않으면 좋은 연구실적을 거두기 어렵다”며 “대학원생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